

## 중국에서 개최된 2004년 CJK Congress에 다녀 오면서...



이 동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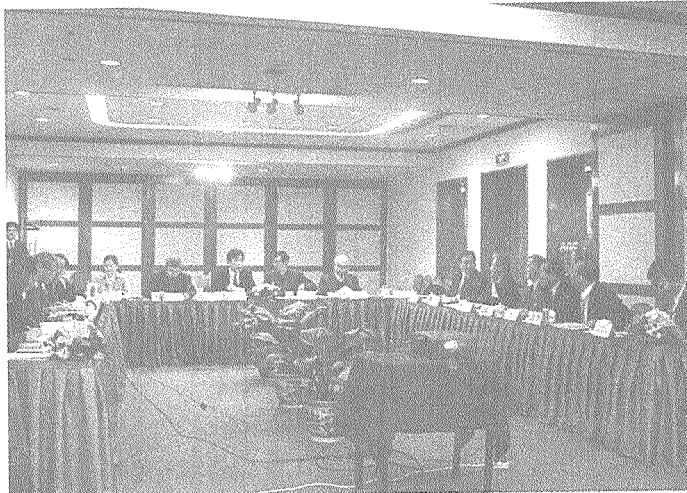
원자력의학원 RI 및  
방사성의약품개발실  
선 임 연 구 원

나는 원자력의학원의 RI 및 방사선의약품 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참여하면서 지난 2004년 11월 29에서 12월 5일까지 개최된 CJK 협력회의 한국대표단 자격으로 중국 북경과 성도를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총 24명의 한국대표단은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남을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베이징공항에 오후 3시쯤 도착하여 중국의 방사성동위원소 협회 회원의 반가운 환영을 받으면서 학회가 개최되는 그랜드호텔로 이동하였다. 호텔에서 여장을 푼 후 중국측에서 제공하는 저녁만찬에 참석하였고 한중일 세 나라에서 모인 약 70~80명의 참가단원과 반가운 첫 인사를 나누면서 중국식 뷔페를 즐길 수 있었다. 그 모임은 방사성동위원소 협회 분들과 동위원소 생산관련 기관 분들과 방사성의약품을 사용

하는 의료 관계자 분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유통하는 회사 관계자 등 여러분들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에서도 3~4명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협력회의가 3번째 모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2년전에 처음으로 CJK 협력회의를 제안하면서 회의를 가졌고 두 번째 회의는 작년에 일본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중국 대표자의 성공적인 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촉매의 잔이 여러 차례 돌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어 갔다. 만찬이 끝난 후 북경의 첫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의견을 모아 북경타워를 향해 3대의 택시로 나눠 타고 달렸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서울방사선서비스, 한일원자력(주), 호진산업기연(주) 참가자와 함께 300미터 높이의 북경타워에서 북경의 야경을 즐기면서 중국차도 마셔보고 사진촬영도

방사성의약품



〈한·중·일 협력분회의 장면, 좌:일본측, 중앙:중국측, 우:한국측〉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보다 큰 북경시내는 평탄하였으며 야경은 한강을 끼고 흐르는 63빌딩에서의 야정보다는 좀 떨어지는 듯 했다. 북경타워의 입장료가 약 7천 원쯤 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고 바람은 차게 불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한 참가자의 방에서 여흥을 즐기며 6박 7일간의 유쾌하고 보람찬 일정을 서로 다짐하였다.

둘째 날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먹고 2일간 계획되어 있는 학회가 한중일 대표단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의학적 이용 및 산업적 응용 분야 등에 대해서 세 나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 대한 세 나라의 현황과 핵의학분야 및 이용분야, 생산시설 현황 등 전반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 테크놀(주)에서 온 참가자는 모든 발표를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잠깐 시간

을 내어 천안문광장과 자금성을 방문하여 중국의 웅장한 궁궐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첫날 학술발표를 끝내고 채화묵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 주최로 대표단 환영만찬을 북경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음껏 즐겼다. 이 자리에는 중국측 방사성동위원소협회 분들도 초청되었고 북경의 한국대사관의 과학관도 참석하여 관심을 보여주었다. 유쾌한 시간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신 채화묵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셋째 날은 오전까지 이어진 학술활동을 한 중일 세 나라에서 오신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중국측에서 제공하는 폐막식 만찬에 참석하였다. 내 테이블에는 일본 다이치 및 메디 피직스에서 오신 두 분, 중국 방사성동위원소 관련회사에서 오신 분 및 연구소 연구원분들이 우리 동료들과 함께 자리하였다. 일본의 다

이치사의 야마모토상은 스칸디트록닉스사와 IBA사에서 각각 제작한 2대의 싸이클로트론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IBA사의 대용량 싸이클로트론을 도입 중에 있다는 말을 전하며 옆에 있는 매디피직스 직원과는 경쟁관계에 있다며 농담을 건내기도 했다. 폐회식을 마친 후 13명의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130위엔 씩 거두어서 버스를 빌렸고 약 2시간을 달려 북경 시내 외곽에 있는 만리장성을 향해 떠났다. 케이블카를 타고 만리장성이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험한 산 정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리장성의 웅장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만리장성에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로 풍경을 바쁘게 담으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규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북방을 방위하기 위해 이 긴 성곽을 이 높은 산에 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남아로 태어나 장성은 꼭 올라와 보아야 한다고 했던 모택동의 말귀가 생각났다. 저녁 만찬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박경배 단장님이 북경의 옥류관에서 귀한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셨다. 옥류관의 저녁식사는 미모의 평양아가씨들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로 시작되었고 평양아가씨들의 멋진 춤과 노래를 황홀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같은 동포라는 따뜻한 동포애도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다투면서 평양아가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참으로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식사 후에는 북경 시내에서 쇼핑의 기쁨도 맛보았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한 술 더 떠 정해진 값이 엄청 고무줄이어서 여러 번의 탐문수색을 통해 적절한 값의 상점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고향 친지들의 선물을 사고 선물 넣을 좋은 가방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보니 기분이 무척 좋았다.

넷째 날 북경에서 2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중국 남쪽 중앙에 위치한 성도로 이동하였다. 호텔에 여장을 푼 후 중국측이 제공하는 저녁 만찬에 참석하였다. 중국 원자력연구소장 등이 한중일 세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면서 제안한 건배가 끊임없이 오고 갔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중국의 정통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중국 대표단원이 하는 말이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여서는 적어도 3번의 원 샷이 있어야 한다”면서 50도의 중국술로 계속 술잔을 부딪쳤다. 나는 술을 잘 못하지만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한 성도는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늘 푸른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며 삼국지의 촉나라의 수도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성도는 천이백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다. 5일째 되는 날 오전 동안은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NPIC) 회의실에서 세 나라의 협력의제에 대해 열띤 회의가 있었다.

시설 및 회의실은 핵잠수함의 내부 모양을 본 따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중국측의 제안은 2008년까지 동위원소생산 전용 원자로를 자체 설계·제작할 계획인데 한국과 일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력해서 동위원소 관련 아시아시장을 석권하고 세계 선도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NPIC 회의실에서 중국측 사업설명 장면〉

자는 제안이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NPIC가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지금부터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협력하기 위한 협정을 맺자고 제안하였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세 나라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거듭해서 역설하였다. 중국에 원자로를 건립하는데 한국의 기술을 접목하고 일본의 구축된 마켓팅 능력과 영업 네트워크를 접목해서 세 나라가 함께 원-원 전략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모국으로 돌아가서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 논의한 후 답을 줄 것을 약속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기업체의 참여, 상호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 다양한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 및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쉽지 않은 세 나라의 공동사업이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성도

시내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후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현장을 향해 약 2시간을 산속으로 들어갔다. 주변에는 강이 흐르고 녹색의 차밭이 펼쳐진 곳에 200MW급의 대형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었다. 연구소 입구는 군인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원자로에 대한 영상물을 본 후 원자로 가동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원자로 조정실을 견학하였다. 원자로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위원소들에 대한 설명과 원격 고선량 근접 치료기에 사용되고 있는 Ir-192 선원 제작과정 및 핫셀 등을 볼 수 있었다. 제작된 선원은 외국회사에 납품도 하고 있었다. 성도 시내로 돌아와서 光頭라는 음식점에 초대되었다. 광두처럼 여자건 남자건 직원 모두가 머리를 박박 밀고 서빙을 하였다. 역시 서로의 협력을 다짐하면서 중국측의 따뜻한 배려와 환영 속에 만찬을 즐기며, 오늘로서 공식일정은 모두 끝나고 내일 토요일 하루는 서로의 돈독한 유대를 위해 관광을 하는 날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식사 후에 중국 문화체험의 하나로 회원들과 함께 발 맛사지를 받으며 필로를 풀 수 있었다. 30위엔씩 주고 따듯한 물로 발을 씻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 50분간 이어지는 발 맛사지를 받은 후 편안히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다. 중국아가씨들과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아도 순수하고 순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방문 6일째인 오늘은 관광하는 날이다. 아침식사 후 작은 산 전체가 부처로 가득한 레산 자이언트 부다라는 곳을 방문하였다. 3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더욱 신비스럽게 보였다. 처음에는 강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70미터의 대형 불상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거대한 운곽을 드러내었다. 산 전체가 곳곳마다 수많은 불상으로 가득하였고 사찰과 많은 부처와 관련된 조각품들을 볼 수 있었다. 강 넘어 멀리서 이 작은 산을 보면 부처가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잠자는 부처라는 이름이 부처졌다. 잠자고 있는 부처의 중요 부분에는 탐이 뾰족하게 세워져 있어서 남자 부처의 건강함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남방여인은 북경의 북방여인들보다 미모가 빼어나고 몸매가 늘씬하였다. 한 식당에서 미인들의 서빙을 받으며 즐거운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한중일 참가자들은 함께 단체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우의를 더욱 다질 수 있었다. 오후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절경이 빼어난 에르메이 산

으로 향했다.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중국의 깊은 산에는 항상 구름과 안개가 계속마다 자욱하게 끼어있으면서 절경이 빼어나고 신비스러운데 그 모습 그대로였다. 산은 깊고 물은 맑았다. 우리는 비경과 절경을 만끽하면서 원숭이가 산다는 오늘의 등반코스를 회원들은 유쾌한 얼굴과 신나는 표정으로 마냥 즐거운 오후 한 때를 보냈다. 드디어 코스의 마지막인 원숭이 나라에 왔다. 산속에 자연스럽게 원숭이들이 몰려 살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먹이를 주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는 먹이를 자연스레 받아먹기도 하고 재롱도 부렸다. 산은 깊어서 며칠을 보아야 다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공항으로 향하다가 좋은 차를 사고 싶다는 회원의 요청으로 유명한 대나무차를 판매하는 대형 찻집에 들러 차를 따르는 퍼포먼스도 보고 영상물도 보고 차 맛도 보면서 NPIC 직원 분들의 친절에 힘입어 질 좋은 차도 값싸게 살 수 있었다. 6박 7일간의 중국 방문기간동안 한번도 개인적으로 식사를 사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따듯한 환대를 받았고 중국 전통코스의 기막힌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나라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닮아있는 한중일 세 나라가 이 분야에서 미래를 향해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의와 협력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나가길 고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에르메이 산